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26
----------	----

발의년월일 : 2006. 11. 1.

발 의 자 : 고 문 식 의원 외 3인

1. 주 문

○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길이니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3만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 제안이유

○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과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중구민의 뜻을 모아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이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 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 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중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3만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6. 11. 1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일동